

“이것을 무슨 교의라고 부를까?”: 캘빈주의와 말로우의 『파우스터스 박사』*

황효식
(충북대)

셰익스피어 극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마 말로우(Marlowe)의 『파우스터스 박사』(*Doctor Faustus*)보다도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도 드물 것이다. 그 논쟁의 핵심에는 대개 신학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시각은 말로우가 이 극에서 아주 사악하고 악마적인 세계를 예찬하고 있다고 보는 유나 엘리스-퍼머(Una Ellis-Fermor)의 반기독교적인 해석이다. 다소 과장된 그녀의 입장에 대해 수정을 가하고는 있지만 해리 레빈(Harry Levin)과 어빙 리브너(Irving Ribner)는 그녀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비평가들이다. 한편 이와는 정반대로 레오 커취바움(Leo Kerschbaum)은 이 극을 엘리자베스 극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극으로 보았고, 마가렛 앤 오브리언(Magaret Ann O'Brien)도 이 극이 성서와 성전에 입각한 기독교 교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¹⁾ 또 조셉 웨슬랜드(Joseph Wesland)도 말로우가 이 극에서 구원의 문제를 정통 기독교의 문맥에서 다루고 있

*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nt in 2004).

1) 『파우스터스 박사』의 비평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Deats 3과 Poole 106을 참고.

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두 정반대되는 해석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한 비평가인 막스 블루스톤(Max Bluestone)은 비평의 초점을 신학적 논제에서 극작법의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작품에 관한 신학적 논쟁이 흔히 작품에서 벗어나 무익한 논쟁으로 확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비평적 초점의 전환은 적절하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말로우가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극작가로서 이 극을 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해석 전략으로서 작품의 양면성만을 지적하면서 양단간의 차이를 무차별적으로 중재하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 극의 세계에는 어디서나 갈등과 모순이 내재해 있다”(Bluestone 55)는 진술은 비평적 해석의 결말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파우스터스 박사』에 대한 비평적인 갈등과 혼동은, 폴 혼데릭(Paul Honderich)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작품과 관련한 16세기 영국의 신학적 배경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이며, 특히 말로우의 켈빈주의(Calvinism)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2). 『파우스터스 박사』는 영국의 종교개혁(Reformation)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으로, 파우스터²⁾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극화하는 가운데, 당대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켈빈주의의 문제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논의를 위한 도입부로서 먼저 말로우가 『파우스터스 박사』를 쓴 시기를 전후로 한 영국의 종교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 그가 극화한 작품의 소재, 그리고 그가 물려받은 영국의 극문학적 유산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말로우가 살던 시대의 영국은 급격한 종교적 변화를 겪었다. 독일과 프랑스를 뒤흔들어 놓았던 종교개혁은 영국에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가져 오지는 않았지만 그 여파는 심대하였다. 하지만 가톨릭 전통은 중세에서부터 내려오는 유산을 보유한 채 여전히 영국민들 사이에서 강세를 유지하였다. 헨리 8세가

2) 파우스터스는 파우스트의 영국식 이름으로 정확히 발음하면 포우스터스라고 해야 하지만 원래 독일 이름 파우스트와 한글 표기상의 관련성을 고려해 파우스터스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독일어 원작과 관련하여 언급할 때는 파우스트, 말로우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가리킬 때는 파우스터스로 표기하였다.

수장령을 반포한 이래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이 영국에 뿌리를 내렸으나 성공회 교회의 신학으로 변형되었고, 켈빈주의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프로테스탄티즘은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휴머니즘 정신의 상승과 함께 중세 시대에 억압되었던 무신론이나 회의주의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켈빈주의는 중세시대에 사회적 결속을 위한 틀을 제공하였던 가톨릭에 대한 반대논제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당대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켈빈주의에 대해 동의하든 안 하든 자유의지, 예정, 은총 등과 같은 켈빈주의의 핵심 개념들이 회자되었다. 대학에서의 신학 교육도 이러한 켈빈주의적 경향을 반영하였는데, 옥스퍼드(Oxford)와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의 경우 켈빈의 『기독교강요』(*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가 신학생을 위한 교과서로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16세기 후반에 영국의 서적 시장이 켈빈주의 출판물로 넘쳐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Honderich 4).

말로우가 켈빈주의 신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은 그의 전기적 사실이 입증해 준다. 그는 파커 대주교(Archbishop Parker) 장학금을 받으며 케임브리지의 코퍼스 크리스티 대학(Corpus Christi College)에서 공부하였다. 이 장학금은 3년간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성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기간을 넘어서도 지급되었다. 말로우가 이 제도를 활용해 기간을 연장하면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그는 성직자가 되기로 서원하였으며 이를 위한 필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것이다. 1580년대에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친 신학은 정통 프로테스탄스 교리로 켈빈주의 시각이 우세하였다(5).

영국의 종교개혁 시대는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분파가 생겨나면서 종교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혹자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교황에 대한 복종보다는 국왕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 하는가 하면 혹자는 또 교황의 우월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올바른 가톨릭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믿었다. 프로테스탄트들도 대개 켈빈주의적 경향을 띠었으나 교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분파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초기 프로테스탄트들은 성공회 교회 안에서 예식과 관련하여 가톨릭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1580년

대에 와서는 이와 같은 투쟁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교리적, 철학적 문제로 관심의 방향을 돌리게 된다(Pinciss 251).

1590년대에 영국의 켈빈주의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러한 기운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 분위기에서 윌리엄 퍼킨즈(William Perkins)가 반대파를 비판하여 1590년 출판한 예정설 교의는 반 켈빈주의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대륙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프로테스탄티즘은 토착화 과정에서 일부 변형되었으며, 점차 차이점을 드러내더니 이제 그 틈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되었다. 케임브리지의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Arminianism)의 입장에서 인간의 절대적 타락과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정통 켈빈주의의 가정들에 도전하였다. 이러한 양자 간의 갈등은 오랜 기간을 지속해오다가 마침내 1595년에서 1596년 사이에 윌리엄 베렛(William Barrett)과 피터 바로(Peter Baro) 교수를 한 축으로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켈빈 파 교수들을 또 다른 축으로 한 두 집단 간의 충돌로 폭발하고 만다(253). 결과적으로 베렛은 자기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받고, 바로는 케임브리지의 교수직을 상실하지만 후일 교회 역사가들은 바로의 반대가 영국에서 켈빈주의자들의 증가하는 힘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254). 퍼킨즈 일파들은 자신의 켈빈주의가 성공회 교회의 교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이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임을 주장했지만 성공회 교회의 입장을 명시한 39개 조항에 더 가까운 것은 베렛과 바로의 견해였다(253).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 논쟁은 그 시발이 15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당시 케임브리지에 수학하였던 말로우의 켈빈주의 종교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³⁾

다음은 『파우스터스 박사』를 창작하기 위하여 말로우가 의존하였던 파우스트 원전과 그가 중세로부터 물려받은 도덕극 관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말로우는

3) 말로우는 1580년 12월 케임브리지, 코퍼스 크리스티 대학에 입학하여 1584년 학사학위(B.A.)를 받았으며, 이 후 일부 부재중인 기간이 있었으나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한 1587년 3월까지 학교에 머물렀다. 켈빈주의에 대한 말로우의 관심이 표출된 『파우스터스 박사』는 학자들 간에 이견도 있으나 1588년에서 159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Pinciss 252 참조.

위 극의 원전으로 영역본인 P. E. 젠틀맨(P. E. Gentleman)으로 표기되는 무명씨에 의해 번역된 『천벌을 받은 파우스터스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The Historie of the Damnable Life and Deserved Death of Doctor John Faustus*)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요한 쉬피스(Johann Spies)가 1587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출판한 『요한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Historia von D. Johann Fausten*)의 영역본인데 현존하는 1592년 본은 재판으로 이미 이전에 번역본이 출간되었다고 한다(McAlindon 23). 종교개혁 시대에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은 파우스트 이야기와 그의 무시무시한 죽음에 관한 소문들을 불신자들에게 하나의 경고성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요한 쉬피스의 『이야기』(*Historia*)는 파우스트의 생애를 소재로 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훈을 장려하기 위해 쓰여진 첫 번째 출판물이었다.

말로우가 물려받은 도덕극 전통도, 파우스트 이야기와 더불어, 그가 의지하고 있는 중요한 문학적 자원들 중 하나이다. 원래 전통적인 도덕극은 언제나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만인』(*Everyman*)은 이러한 도덕극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다. 도덕극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겪는 순례의 역정과 그 결과 맞이하는 내세에서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단순한 플롯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형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종들이 있다. 주인공은 도상에서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 그는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비록 그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탄원하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준다는 확신이 늘 존재한다. 인간의 자유의지, 하느님의 자비와 관용은 전통적인 도덕극에 있는 기본 주제들이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도래와 함께 도덕극의 낙관적이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6세기 말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은 전통적인 도덕극들을 취하여 주인공들을 지옥에 떨어뜨림으로써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이 극들을 무신론자나 회의주의자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로 변형시켜놓았다. 나다니엘 우드(Nathaniel Wood)의 『양심의 갈등』(*The Conflicts of Conscience*)은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도덕극의 좋은 모델이다(Honderich 6).

그러면 말로우의 켈빈주의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파우스터스 박사』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주요 관련 장면들을 선별하여 논의해 보도록 한다. 개막 장면

에서부터 이미 말로우의 파우스터스를 켈빈주의 배덕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시킨다. 원전(P. E. 젤틀만의 영국 파우스트 이야기)을 보면 파우스터스는 전형적인 배덕자로서, 이리석고 쉽게 유혹에 빠지며, 학업에 정진하지 않고 잡기에 열중하는 어떤 유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말로우의 극에서 파우스터스는 피와 살을 가진 살아 있는 인물로서, 켈빈주의 교의에 반발하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비극적 종말을 맞고 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박사라는 칭호에 어울리게 서재에서 첫 모습을 드러내는 파우스터스는 인간의 한계성에 직면하여 철학, 법학, 의학 등등 제 학문의 무력함에 실망한 나머지 하나하나 관련 서적들을 폐기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신학은 그가 만학의 왕으로 가장 소중히 여긴 학문이지만 오히려 그런 애정과 기대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큰 배신감을 느끼며 지독하게 경멸하게 된다. 극의 시작에서부터 만연하게 느껴지는 이 절망적 분위기의 중심에는 그가 지금 무엇보다도 더 혐오하고 있는 이 신학과 관련하여 켈빈주의 배덕자라는 파우스터스의 자기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극도의 절망 가운데 파우스터스가 인용하고 있는 성서의 본문은 자의적으로 절단된 것이며 이처럼 왜곡된 본문을 기초로 한 추론은 “*케 세라, 세라*”(Che sera sera 될대로 되라)(1.1.49)라는 자포자기적인 결론에 이른다.

제품의 성서를, 파우스터스, 잘 보아라.

‘스티펜디움 페카티 모르스 에스트’ 하!

‘스티펜디움,’ 에트 케테라.

죄의 댓가는 죽음이라? 엄중하군.

Jerom's Bible, Fautus, view it well:

'Stipendium peccati mors est.' Ha!

'Stipendium', etc.

The reward of sin is death? That's hard. (1. 1. 38-41)⁴⁾

4) 작품 인용은 데이비스 베빙톤(David Bevington)과 에릭 라스무센(Eric Rasmussen)이 편집한 *Christopher Marlowe: Tamburlain, Part I and II, Doctor Faustus, A- and B-Texts, The Jew of Malta, Edward II*, Oxford: Oxford UP (1998)에 수록된 *Faustus A-Text*를 따랐으

위 내용과 관련된 성서 구절은 로마서 6장 23절로 “죄의 대가가 죽음이지만 하느님은 선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주셨다”(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이다. 우리는 파우스터스가 해당 성서 구절의 절반만을 인용하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서 구절은 넓은 범으로부터의 해방과 그리스도에 의해 인류에게 부여된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파우스터스의 주장은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인용에서 파우스터스는 또 다른 성서 구절을 가져오지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서의 원래 의미를 왜곡시킨다.

‘시 페카세 네가무스 팔리무르’
‘에트 놀라 에스트 인 노비스 베스타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진실성이 없는 것이다.

'Si peccasse negamus, fallimur
Et nulla est in nobis vestas.'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re's no truth in us. (1.1.39-45)

요한 1서 1장 9절의 내용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께서는 충실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정화해주신다”(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이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인용과 해석을 토대로 한 추론이라면 파우스터스의 다음과 같은 논증의 결과가 참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마 죄를 짓고 그래서 죽어야만 한다.
그렇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만 한다.

며, B-text를 참고한 경우는 별도로 언급하였음.

이것을 무슨 교의라고 부를까? *케 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고? 신학이여, 작별이다!

Why then belike we must sin and so consequently die,
 Ay, we must die an everlasting death.
 What doctrine call you this? *Che sera, sera*:
 What will be, shall be? Divinity, adieu! (1.1.46-50)

그렇다면 파우스터스는 왜 성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절단하거나 왜곡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 파우스터스가 성서에 대해 무지해서 그릇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데이비드 리그스(David Riggs)는 소위 “악마의 삼단논법”(devil's syllogism)이라고 불리는 상기 파우스터스의 추론이 말로우의 동시대인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 이유는 영국과 뷔르템부르크(Württemberg)에서 채택된 칼빈주의 도그마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칼빈도 로마서 6장 23절의 첫 번째 절반만을 따로 분리하여 “모든 죄는 필멸”(all sin is mortal)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성공회 교회법 15조도 요한 1서 1장 8절의 첫 번째 절반만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그스는 죄를 고백하는 자 모두가 용서 받을 것이라는 암시는 엘리자베스 시대 교회의 헌법인 39개조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계신다는 언급이 있다고 한다(241).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보면 파우스터스는 무지해서 성서를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는 위 성서 구절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나 칼빈주의 교의가 확립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성서의 구절들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절단한 사례들을 의식적으로 재연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의 결과, 선택받은 자들과는 정반대로 파우스터스의 경우와 같이 버림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칼빈주의 교의의 심각한 모순은 지상에서의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예정된 대로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이다.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를 희구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

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의는 납득할 수 없는 저주의 교의가 된다. “이것을 무슨 교의라고 부를까, *케 세라, 세라*.”라는 대사에서 파우스터스는 버림받은 자의 입장에서 켈빈주의 예정설 교리의 부당성을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케 세라, 세라*.”라는 말은 파우스터스가 앞으로 악마와의 계약에 따라 24년간 쾌락을 추구하면서 목적을 상실하고 살게 될 삶의 특질을 잘 요약하고 있어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한다.

파우스터스는 자신을 켈빈주의 배덕자로 간주하고 절망하는 한편, 이를 이유로 쾌락을 추구하는 자신의 생활을 합리화하려는 자기기만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파우스터스는 지옥을 “하나의 우화”(a fable)(2.1.127) 또는 “늙은 아낙네들의 이야기”(old wives' tales)(l. 135) 혹은 고전에서 말하는 “극락정토”(Elysium)(1.3.60)로 혼동하기도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규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무대에서 파우스터스가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라는 지옥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볼 때 지옥의 존재는 극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이어지는 파우스터스와 메피스토펠레스의 교리문답은 기독교 전승에 따른 지옥의 실체와 그 내력을 극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다 (1.3.63-85). 메피스토펠레스의 지옥에 대한 형이상학적 묘사에 따르면 지옥은 어떤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단절된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오거스틴(Augustine)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켈빈의 지옥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지옥을 늘 가지고 지내게 될 것이다. 양심이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지 숙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하느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실로 지옥이 지배하게 된다.⁵⁾

5) 켈빈의 『요한 1서 해설』(Commentary on 1 John) 중에서. Streete 149에서 재인용함.

하지만 파우스터스는 이를 비웃으며 그렇다면 자신은 기꺼이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한다.

뭐? 지금 지옥에 있다고? 아니, 만일 이곳이 지옥이라면, 나는 기꺼이 여기 지옥에 떨어지겠네. 야아! 산보, 논쟁 따위나 할까? 그럼 이 정도로 해두고 나에게 독일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마누라나 하나 얻어주게. 나는 음란하고 호색한 사람이라 마누라 없이는 못 사니까.

How? Now in hell? Nay, an this be hell, I'll willingly be damned here.
 What! walking, disputing, etc? But leaving off this,
 let me have a wife, the fairest maid in Germany, for I am wanton
 and lascivious and cannot live without a wife. (2.1.138-41)

파우스터스의 관심사는 궤변적인 추론에 의해 지옥과 현실 세계를 동화시켜 지옥의 개념을 무력화함으로써 지옥이 주는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데 있다.

윌버 샌더스(Wilbur Sanders)는 칼빈주의의 이율배반적인 교의의 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현실 도피적 쾌락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태도가 진지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249-50). 쾌락은 파우스터스가 절망 속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목적은 아니다. 실제로 파우스터스는 지옥을 부정하는 위 대사에서처럼 철저한 쾌락주의자로 살아가지는 못한다. 본질적으로 그는 진지한 사람이며, 이 때문에 칼빈주의를 부정하면서도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파우스터스 박사』에서 말로우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회개의 문제를 칼빈주의의 관점에서 논의해보기로 한다.

파우스터스가 마법을 택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나타나 각기 파우스터스를 설득한다. 이는 중세 도덕극에서 가져온 관습으로 파우스터스가 과연 회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배덕자로서 남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막이 내리기까지 극적 긴장

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여한다. 중세 도덕극에서 주인공은 인간을 대표하는 유형적 인물이며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양단 간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의지를 지닌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어느 때고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폴 코처(Paul Kocher)는 파우스터스도 전락 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악의 유혹을 떨치고, 회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xi). 하지만 배덕자에 대한 프로테스탄스 교의에 따르면 회개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주는 선물일 뿐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켈빈의 다음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나 회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하느님께 귀속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하지만 만일 먼저 하느님의 은총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하느님께 귀속되어 있다고 진정으로 확신할 수 없다.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III. 3. 2)

그러므로 배덕자의 경우에 자신이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하느님의 은사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한 것이다. 파우스터스도 여러 번 회개의 움직임을 보여주나 이는 진정한 회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죄의 결과로 우울상태에서 나타나는 발작적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켈빈은 하느님을 부인한 결과 배덕자가 겪는 고통을 회개의 징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왜냐면 이것은, 극단적인 상태에서, 불경한 사람들에게 이전에 그들이 소홀히 하였던 것을 억지로 주목하게 하는 단순한 불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Sanders 244).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회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 인격이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Ramussen 83). 영국에 켈빈주의를 널리 유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윌리엄 퍼킨즈는 당시 베스트 셀러였던 그의 저서들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상태에 있는지 혹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⁶⁾ 퍼킨즈의 이 저서들 외에도 로버트

6) Poole 101 참고. 베스트셀러였던 퍼킨즈의 두 저서는 다음과 같이 긴 서술적인 제목을 가

리나커(Robert Linaker), 리처드 그린햄(Richard Greenham), 아더 덴트(Arthur Dent) 등 많은 성직자들이 같은 부류의 책자들을 저술하였고 특히 덴트의 경우 그의 저서, 『회개에 관한 설교』(*Sermons of Repentance*)는 1640년까지 무려 21판이나 출판되었음을 볼 때 당시 영국민들이 켈빈주의가 가져온 주제—은총, 회개, 양심 등—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짐작해 볼 수 있다(Sanders 246-47).

퍼킨즈는 양심의 고통은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구원으로 승화되지만 불신자들의 경우엔 파멸과 혼동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선택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율법은 그들이 믿음으로써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지만, 나머지 버림받은 이들에게도 같은 율법을 주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심판의 날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 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퍼킨즈는 타락 후의 인간은 양심도 본성상 악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재생의 양심과는 반대로 잘못을 책망하는 악한 양심은 배덕자로 하여금 하느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여 적으로부터 달아나듯 하느님으로부터 달아나게 한다고 주장한다(Sanders 245). 말로우의 파우스터스도 켈빈주의 관점에서 이처럼 악한 양심에 의해 괴로움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하느님을 피해 달아나다 파멸하고 마는 배덕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극의 클라이막스인 헬렌(Helen) 장면에서 파우스터스에게 회개를 호소하는 인물로 한 노인(Old Man)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회개로 막을 내리는 전통적인 도덕극의 관습을 말로우는 아이러니하게 비틀고 있다. 회개를 촉구하는 노인의 말에 파우스터스는 도덕극의 관습에 따라 회개하려는 것같이 보인다.

지고 있다. 『한 사람이 저주의 상태에 있는지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의 표명에 관한 논문: 만일 그가 전자라면 이제 그는 그곳에서 벗어날 때이며, 만일 후자라면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것인가』(1589) (*A Treatise tending vnto a declaration whether a man be in the estate of damnation or in the estate of grace: and if he be in the first, now he may in time come out of it: if in the second, how he maie discerne it* (1589)); 『가장 큰 양심의 문제: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가 하느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가』(1592) (*A Case of Conscience, the Greatest that ever was: how a man may know whether he be the childe of God, or no* (1592))

내 죄를 생각하도록 잠시 나를 놓아주소.

.

저주받은, 망할 파우스터스, 자비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회개를 하지만, 절망한다.

지옥이 내 마음을 정복하려고 은총과 다툰다.

죽음의 덫을 피하기 위해 난 무엇을 해야 하나?

Leave me a while to ponder on my sins

.

Accursed Faustus, where is mercy now?

I do repent, and yet I do despair.

Hell strives with grace for conquest in my breast.

What shall I do to shun the snares of death? (5. 1. 59-65)

하지만 파우스터스는 악마의 위협에 즉시 마음을 바꿀 뿐 아니라, 놀랍게도 루시퍼에게 자기가 잘못을 범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용서를 받고 있다.

친절한 메피스토펠레스, 자네 주인에게
나의 부당한 오만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계. . . .

Sweet Mephistopheles, entreat thy lord
To pardon my unjust presumption. . . . (5.1.69-70)

회개하라는 노인의 촉구는 결과적으로 파우스터스로 하여금 루시퍼와 이중으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파우스터스의 파멸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 켈빈주의 시각에서 보면 노인은 배덕자로 하여금 자기 죄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하여, 그를 더 깊숙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확실하게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하느님이 파견한 사자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켈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맹목을 증가시키고자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더 큰 우매함에 빠지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도 없게 하려고 수수께끼로 포장하여 그의 교의를 전달하신다. (『기독교 강요』 III. 24. 13)

또 켈빈의 설명에 따르면 배덕자들은 하느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굳혀놓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충고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부름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Biringer 182).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나타나 회개의 문제가 처음으로 극화된 때에 파우스터스가 말하는 다음 대사도 이러한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의 심장이 굳어서 나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

구원, 믿음, 혹은 하늘이라는 이름을 거의 부를 수 없다.

하지만 무서운 반향이 내 귀에서 천둥친다.

‘파우스터스, 그대는 저주를 받았다!’

My heart's so hardened I cannot repent.

Scarce can I name salvation, faith or heaven

But fearful echoes thunders in mine ears:

‘Faustus, thou art damned!’ (2.3.18-21: 밑줄은 필자가 표시)

만일 하느님이 파우스터스의 마음을 이미 굳혀놓으셨다면 지금 노인의 설교는 파우스터스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이며 불변의 배덕자인 파우스터스의 운명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극의 액션 측면에서 보면 파우스터스의 파멸을 결정짓는 사건은 파우스터스와 헬렌과의 성적 결합이다. 앞서 파우스터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던 노인은 이 사건 이후 파우스터스의 파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대사를 하고, 메피스토펠레스를 비롯한 악마들에게 쫓기어 무대에서 퇴장한다(5.2.110-118). B 텍스트에서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 다함께 파우스터스의 파멸을 확정짓는 대사를 한다(5.2.105-26). 하지만 켈빈주의 시각에 따라 파우스터스의 운명이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다면 파우스터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지금까지

반복된 선한 세력의 회개 권유도 그의 저주받은 운명에 대한 조롱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비록 저주가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파우스터스가 자신의 전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켈빈주의의 모순된 입장이다(Honderich 7).

파멸에 앞서 대학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파우스터스는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곧 닥칠 파멸의 위협으로부터 동료들이 안전하게 물러나 있기를 당부하는 인간적인 면모 보여준다. 마지막 독백에서 파우스터스는 회개의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께로 올라가려 하나 악마의 힘에 의해 억제된다. 켈빈에 따르면 악마도 하느님의 대행자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파우스터스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창공에 흐르는 것을 보면서 한 방울, 아니 반 방울이라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나의 그리스도’를 부른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부른 이유로 파우스터스는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받는다. 극도로 감정이 고조된 이 장면에서 말로우는 파우스터스의 가슴을 찢는 주체가 그리스도인지, 루시퍼인지 불분명하게 처리해두고 있다.

오 나는 나의 하느님께로 올라 가련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지?
 보라, 보라, 창공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을!
 한 방울도 내 영혼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반 방울이라도. 아 나의 그리스도여
 아, 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나의 심장을 찢지 마시오.
 하지만 나는 그를 부르리. 오, 살려줘요, 루시퍼!

O I'll leap up to my God! Who pulls me down?
 See, see where Christ's blood streams in the firmament!
 One drop would save my soul, half a drop: Ah, my Christ!
 Ah, rend not my heart for naming of my Christ;
 Yet will I call on him. O, spare me, Lucifer! (5.2.69-73)

분명한 것은 파우스터스에게 내린 저주가 이제 하느님의 징벌에 의해 확고해진다는 것이다. 이어 하늘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사라지고 대신 분노한 하느님이 파우스터스를 파멸시키기 위해 무섭게 다가온다.

어디 있지? 사라졌군. 하느님이 저기서
 팔을 뻗고 화난 눈썹을 치켜뜨는 것이 보이네.
 산과 언덕아, 오너라, 와, 그리고 내 위를 덮쳐,
 하느님의 무거운 분노로부터 나를 숨겨다오!

Where is it now? 'Tis gone; and see where God
 Stretched out his arm and bends ireful brows!
 Mountains and hills, come, come and fall on me,
 And hide me from the heavy wrath of God! (5.2.74-77)

마지막 독백에서 배덕자 파우스터스의 고뇌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관객들로 하여금 파우스터스의 운명을 동정하게 하고, 또한 냉혹하고 무자비한 칼빈주의 하느님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한다. 풀(Poole)은 프롤로그에서 코러스가 이 극에 대한 판단을 관객에게 맡긴다고 말한 구절(1. 9)에 주목하면서 파우스터스가 하느님의 심판을 받듯이 말로우가 관객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심판하게 한다고 주장한다(106).

말로우의 파우스터스에 대한 동정적 시선은 원전인 P. E. 젠틀맨의 파우스트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보다 확실해진다. 이 이야기는 파우스터스라는 배덕자를 한 예로 하여 신자들에게 경고를 줄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대체로 직설적인 톤으로 쓰여진 이 글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파우스터스를 조롱하도록 조장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파우스터스로부터 심리적인 거리감을 갖게 한다. 파우스터스의 죽음에 관한 묘사에서 말뚝 위에 던져진 파우스터스의 찢겨진 시신은 이러한 사례의 한 극단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이 글은 불신자를 경고하는 진지한 설교에 이어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로 마무리된다.

이 사례로부터 모든 기독교인, 특히 오만하고 방자한 자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을 언제나 우리 눈앞에 두고, 그 분만을 부르고, 우리 생애의 모든 날을 바쳐 그 분을 경배하며, 충정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도다. 아멘, 아멘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과 하느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으리로다. 아멘.7)

반면 말로우는 에필로그에서 파우스터스의 파멸을 불에 탄 “아폴로의 월계수 가지”에 비유하며 아쉬움을 남긴다.

곧게 자랄 수 있었던 나무 가지가 잘려지고
언젠가 이 박식한 사람 속에서 자랐을
아폴로의 월계수 가지가 불탔구나.

Cut is the branch that might have grown full straight,
And burned is Apollo's laurel bough
That sometimes grew within this learned man. (Epilogue 1-3)

물론 이어서 파우스터스의 파멸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점에서 말로우의 태도는 애매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파우스터스는 갔다! 그의 지옥행을 잘 보아두라,
그의 흉측한 운명이 현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일들에 다만 놀라게 할 따름이다. . . .

Faustus is gone! Regard his hellish fall,
Whose fiendful fortune may exhort the wise
Only to wonder at unlawful things. . . . (Epilogue 4-6)

하지만 우리는 원전의 흔적으로 보이는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말로우의 특질이 보다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 동정적 시각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불에 탄 “아폴로의 월계수 가지”에 대한 비유는 코러스가 프롤로그에서 파우스터스의 전락을 신의 경지를 침범했다가 추락한 이카러스의 신화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하여 이 작품을 고대 그리스 비극과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말로우의 『파우스터스 박사』는 지식과 미를 추

7) Thoms, William John, ed. *Early English Prose Romances*. London: Nattali and Bond, 1858. Chapter 63.

구하다 전략한 비극적 주인공으로 르네상스 지성인의 욕망이 투사된 인물이라고 한다. 19세기 낭만주의 비평가들을 위시해 많은 현대 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말로우의 파우스터스를 중세적 한계를 초월하려다 파멸한 르네상스 지성인의 비극으로 읽어왔다.

하지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언급하는 파우스터스와는 달리 극의 액션에서 파우스터스는 르네상스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비극적 주인공의 모습을 만족스러운 만큼 보여주지는 않는다.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을 맺고 마법에 빠지는 순간부터 파우스터스는 원대한 공리적 비전을 잃어버리고 눈앞의 쾌락에 급급하며 24년을 보낸다. 한편 이러한 외면적 사건 전개 of 이면에서 회개의 문제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내적 갈등의 드라마가 이 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말로우가 보여주는 시대적 관심사는 켈빈주의의 문제이며, 이 극이 당시에 큰 인기를 모았던 이유도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당대 관객들의 불안한 내면 심리를 잘 포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켈빈주의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자가 없는 직접적인 관계를 주장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인간의 구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의 불가해성으로 말미암아 당대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왜냐면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믿음을 통해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진정한 대답은 하느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느님께서 배덕자들에게도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 일시적인 혹은 거짓된 믿음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 속으로 신앙을 확신하고 있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배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파우스터스의 비극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우스터스는 종교개혁 시대의 만인(Everyman)이라고 할 수 있겠다(Poole 104-06).

말로우의 『파우스터 박사』는 켈빈주의의 비인간적인 면에 대한 묵시적 비판으로서 켈빈주의에 대한 당대 관객들의 불안한 내면 정서와 공명하며 크게 성공한 극이었다. 반 켈빈주의 신학자들의 투쟁이 영국에서 켈빈주의의 증대를 막는 견제 역할을 하였다면, 『파우스터 박사』에서 나타난 켈빈주의에 대한 말로우의 비판적 태도는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에서 존 던(John Donne)을 통해 존 밀턴(John

Milton)으로 이어지며 신앙과 이성 간의 조화를 추구해 나간 영국의 주류 사상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파우스터스 박사』에 대한 기독교/반 기독교 논쟁은 이 작품이 제기하고 있는 신학적 문제를 종교개혁이라는 특수한 당대의 문맥에 밀착시켜 논의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말로우는 『파우스터스 박사』에서 켈빈주의에 반항하지만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켈빈주의 배덕자의 비극을 제시함으로써 관객들로부터 반 켈빈주의 정서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Key Words: 종교개혁, 켈빈주의, 배덕자, 예정설, 은총, 회개, 양심

참고문헌

- Bevington, David and Eric Rasmussen eds. *Christopher Marlowe: Tamburlain, Part I and II, Doctor Faustus, A- and B- Texts, The Jew of Malta, Edward II*, Oxford: Oxford UP, 1998.
- Birringer, H. Johannes. *Marlowe's Dr. Faustus and Tamburlaine: The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Lang, 1984.
- Bluestone, Max. "Libido Speculandi: Doctrine and Dramaturgy in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Marlowe's *Doctor Faustus*." *Reinterpretations of Elizabethan Drama*. New York: Columbia UP, 1969. 34-83.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 Battles.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Deats, Sara Monsun. "Doctor Faustus: From Chapbook To Tragedy." *Essays in Literature* 3:1 (1978): 3-15.

- Honderich, Pauline, "John Calvin and *Doctor Faustus*." *Modern Language Review* 68 (1973): 1-13.
- Kocher, P. H. *Christopher Marlowe: A Study of His Thought, Learning and Character*. New York: Rusell & Rusell Inc., 1946.
- McAlindon, T. *Doctor Faustus: Divine in Show*.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4.
- Pinciss, G. M. "Marlowe's Cambridge Years and the Writing of *Doctor Faustus*."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33: 2 (1993): 249-65.
- Poole, Kristen. "Dr. *Faustus* and Reformation Theology." *Early Modern English Drama: A Critical Companion*. Eds. Sullivan, A. Garrett, Jr., Patrick Cheney and Andrew Hadfield. Oxford: Oxford UP, 2006. 96-107.
- Ramussen, Eric. *A Textual Companion to Doctor Faustus*. Manchester: Manchester UP, 1993.
- Riggs, David. *The World of Christopher Marlow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4.
- Sanders, Wilbur. *The Dramatist and the Received Idea: Studies in the Plays of Marlowe and Shakespeare*. London: Cambridge UP, 1968.
- Streete, Adrian. "'Consummatum Est': Calvinist Exegesis, Mimesis and *Doctor Faustus*." *Literature and Theology* 15:2 (2001): 141-58.
- Thoms, William John, ed. *Early English Prose Romances*. London: Nattali and Bond, 1858.
- Westlund, Joseph. "The Orthodox Christian Framework of Marlowe's *Faustus*."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3 (1963): 191-205.

“What doctrine call you this?”:
Calvinism and Marlowe’s *Doctor Faustus*

Abstract

Hyosik Hwang

No Elizabethan play outside Shakespeare's canon has raised more controversy than Marlowe's *Doctor Faustus*, the center of which has usually been theological matters. In spite of the critical conflicts the problems of *Dr. Faustus* could be possibly solved by reading the play in the immediate context of its making. It seems that the entanglements of the theology in *Doctor Faustus* are partly due to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sixteenth-century theological background and, in particular, partly to a misunderstanding of Marlowe's attitude toward Calvinism. Writing the play in the time of the English Reformation Marlowe dramatized the Faust story scrutinizing the problems of Calvinism which might have possessed the contemporary intellectuals' mind.

In the opening scene Marlowe presents Faustus as a Calvinist reprobate who is distinctively in the prevalent mood of despair. In his desperate complaint, "What doctrine call you this, *Che sera sera*," Faustus as a Calvinist reprobate sardonically criticizes the Calvinist doctrine of election. In his hedonist view of hell Faustus tries to escape from the fear and anxiety of the hell and rationalize his pursuit for sensational pleasures. Faustus, however, cannot be an absolute hedonist, so that he repeatedly agonizes over his damned state.

Calvin said that reprobates could not repent if they heard the God's admonishments because he hardened their hearts beforehand. If this is true, Faustus is not responsible for his action, and all the persuasions of the good and evil forces on Faustus are nothing but repeated taunts for his damned fate from God. In the last soliloquy made in the urgency of pending damnation Faustus expresses his agony and suffering so vividly that the audience would have sympathy with his

doomed fate, and also would be led to criticize the severe and merciless nature of the Calvinist God.

Marlowe's *Dr. Faustus* was a great success among the contemporary audience probably because of its resonance with their anxiety caused by Calvinism. Just as anti-Calvinists' resistance at Cambridg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urbing the growing power of Calvinism in England, so Marlowe's critical attitude towards Calvinism made a dramatist's share of the contribution to the making of the mainstream of the English thought, from Richard Hooker through John Donne to John Milton, which had continuously pursued a balance between faith and reason. The theological controversy in *Dr. Faustus* could be overcome by locating this play in its immediate context of the English Reformation. In *Doctor Faustus* Marlowe evokes the sympathy with the anti-Calvinist sentiment from the contemporary audience by presenting a tragedy of a Calvinist reprobate who resists the Calvinist doctrine but cannot escape from the framework of Calvinism.

▶ Key Words: Reformation, Calvinism, predestination, reprobate, grace, repentance, conscience

황효식(단독연구)

충북대학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hhwang@chungbuk.ac.kr

논문투고일: 2006년 11월 10일

논문심사일: 2006년 11월 11일~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6일